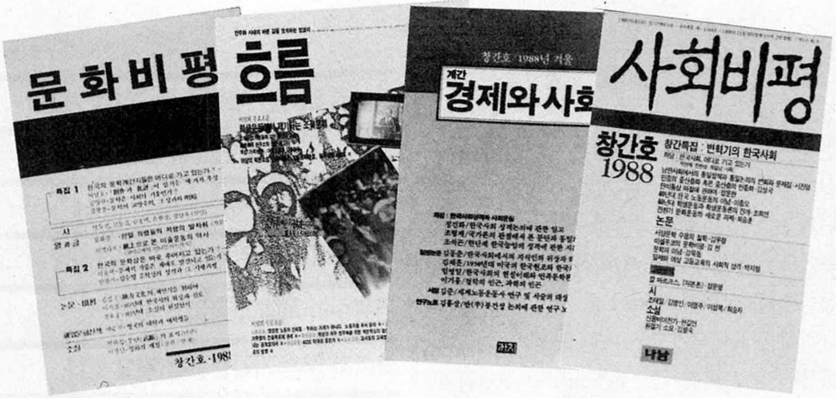
사회과학 전문誌 등 창간 러시

진보적 시각, 치열한 문제의식…詩전문 계간지도



잡지계에 세찬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잡지는 많아도 진짜 읽고 싶은 잡지는 드물다"는 일반의 통념을 부수고, 단순히 센세이셔널리즘에 의지하지 않는 잡지, 수준높은 학술성과 시사성을 적절히 조화시킨 잡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잡지 창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 출판으로 꾸준히 역량을 다져온 출판사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잡지창간 붐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출판으로 역량을 다져온 출판사들이 이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융합을 시도한 수준높은 잡지의 등장은 독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비판적 아카데미즘의 전면 대두

백화점식 편집, 정치비화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시사월간지에 도전, 새로운 가능성을 연 잡지가 바로 한길사의「사회와 사상」과 형성사의「흐름」이다. 88년 9월 동시 창간된 이 두 월간지는 천편일률적인 종합지에 식상한 독자들에게 참신한 정보와 관점을 제시하여 호응을 받고 있다.

'학문과 사상의 대중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사회와 사상」이 비판적 아카데미즘의 입장에서 민족문제, 사회문제를 다각도로 천착하고 있다면, 보다 운동현장에 밀착해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잡지가「흐름」이다. '민주화시대의 바른 길을 모색하는 정보지'라는 표제에 걸맞게 그 기간에 있었던 중요하고 본질적인 '흐름'의 맥을 짚어나가고 있다. '주요흐름' '부문흐름' '북한흐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이 잡지는 월별로 각종 재야단체에서 나온 주요 문건들이 한곳에 모아져 총체적 이해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 특히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사회와 사상」은 월평균 2만부 정도가,「흐름」은 8천부 정도가 각각 소화되고 있다. 아직 수지타산이 맞는 단계엔 이르지 못했지만 독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아울러 최근 창간된「사회비평」(나남)과「경제와 사회」(까치)는 보다 학술적인 면에 치중한 사회과학전문지. 오생근·임현진·이성원·김인환씨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반년간지「사회비평」은 "변혁기의 역사적 현실을 통찰하고 진정한 삶의 방향을 의식하는"잡지를 지향하고 있다. 편집위원 구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치·경제적 투쟁을 '문화투쟁'에 접목시키려는 의지가 엿보이며, 이러한 편집방향은 '변혁기의 한국사회'라는 특집으로 작금의 통일·노동·학생운동을 분석한 논문과 시·소설같은 창작물을 함께 싣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

이처럼「사회비평」이 상부구조에서 하부구조로 접근해가고 있다면, 하부구조의 해명을 통해 상부구조를 도출해내려는 잡지가 계간「경제와 사회」이다. 최장집·김진균·김수행·서관모씨등 10명이 편집위원으로, 허석열·이숙경·공제욱씨등 6명이 기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잡지는 특집「한국사회성격과 사회운동」을 비롯, 국내 경제사회현상에 대한 진보적 시각의 연구성과를 폭넓게 담고 있다. 앞으로도 젊은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집단적·조직적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수렴할 예정으로 있다.

대구에서 문학지「문화비평」펴내

문학지의 춘추전국시대와 같은 요즘 다시 2종의 새로운 문학지가 선을 보였다. 청하에서 낸 국내 최초의 시전문지「현대시세계」와 대구의 형설출판사에서 낸「문화비평」이 바로 그것이다.

'수준높은 詩문학의 대중적 확산'을 도모하는 계간지「현대시세계」는 정예시인의 신작시를 집중 게재하고 시효성 있는 테마에 대한 토론과 평론을 실어 초판이 바로 매진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주에서 나온「文學과 意識」(新亞)에 이어 지방출판사로선 두번째로 창간한 문학지「문화비평」(형설)은 지나치게 중앙집중화된 현재의 문단구조에 비판을 가하면서 출발하고 있다. 특집 '한국의 문학계간지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 세 평론가가「창작과비평」「문학과지성」「세계의 문학」등 기존의 주요 문학계간지를 비판적으로 해부하고 있으며, '한국의 문학상은 바로 주어지고 있는가'에선 이상문학상과 김수영문학상의 권위에 도전하는 과감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문학지로「우리문학」(계간)이, 시사지로「여론시대」(월간),「선택과 비판」(계간)이 창간되었다. 그밖에 사회과학 무크「현실과 과학」(새길),「동향과 전망」(태암)도 실천을 지향하는 젊은 학자들의 논리가 담겨 주목을 끌고 있다.

이처럼 문학지를 비롯, 사회과학지가 활발하게 출판되고 있는데 대해서 경제평론가 정운영씨는 "치열한 문제의식만으로도 올해 우리의 사회과학이 거둔 가장 큰 수확의 하나"라고 평가하면서 '학문적 당파성'을 주장하는 새로운 연구세대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내다보았다.

—남진우 기자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사색하는 사랑을 위하여

사랑은 자유하는 삶입니다

시인 칼릴 지브란의
사랑의 편지가 들려주는
정제된 영혼의 언어,
여기에 답하는 지적인
한 여인의 나즈막한 음성.

정은하 엮음 값 2,000원

천재들의 학창시절

천재는 어떤 사람들일까?

청소년 선정도서

세계의 역사를 이끌었던
여러 천재들이 있다.
아인슈타인, 처어칠,
퀴리 부인, 슈베르트……
그들의 학창시절은 어떠했을까?
공부만 잘하는 우등생이었을까?
천재들의 생생한
학창시절로 함께 떠나보자.

게르하르트 프라우제·이인식 역 값 2,700원

사랑의 모자이크

이 겨울,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신간

아담과 이브에서부터
비롯되는 사랑의 이야기 —
동화속의 사랑, 오페라속의 사랑,
신화속의 사랑, 사랑사전,
사랑의 명문, 트리비아.

따뜻한 사랑의 선물

김하계 엮음 값 3,000원

도서출판 진선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445-5 전화·702-2921, 717-2131~4